*[연재(1)

미 국 기 행

원 용 택
<대한사료 기획부장>

○……다음은 지난 5월 7일 사료협회 알선과 미곡물협회 초청으로 미국의 축산업계……○
○……를 돌아보고 귀국한 대한사료 원용택 부장의 미국 기행을 독자들을 위하여 흥……○
○……미 있게 게재하기로 했다. 지난호 오세정 교수의 미국축산업계를 돌아보고에……○
○……이어 이번호부터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의 이모저모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사료협회의 알선과 주선으로 미국농무성 및 곡물협회 초청의 일원으로 미국축산업계를 시찰할 기회를 얻어 공식일정 20일, 사무로 20일, 40일 간의 미국의 단편을 볼 기회를 가졌었다. 전호에 오세정교수의 자세한 보고를 게재했으므로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축산학도로서 처음 본 미국의 이모저모를 본대로 들은대로 느낀바를 적어볼가 한다. 짧은 일정에 편견적이고 견해차 및 소견이 틀리는 것이 있어도 애교로 받아주고 용허와 지도편달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

1. 태평양 횡단

우리일행 6명은 5월7일 비오며 복잡한 김포공항을 오후 2시 30분에 N.W.A.를 타고 미국시찰의 첫 걸음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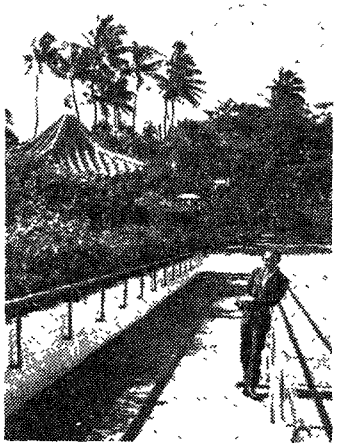
비행기를 탑승한지 2시간만에 일본의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보세구역내 대합실에서 약 2시간 30분 대기하는 동안 물품가격을 보니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에는 3년전에 와본 경험이 있어 그다지 마음의 설레임이 없었으나 NWA 점보 젯트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에 이르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은근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뭉게 구름과 파란물이 파도가 일며 저멀리 지평선만이 보인다. 좌석은 410석인데 탑승객은 의외로 적어 약 100명 정도였다.

좌석이 텅텅비어 있어 우리는 지정장소 이외로 외부가 잘 보이는 창구로 이동하였다. 점점 외부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은근히 앞으로 닥칠일이 걱정이 된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겠지…? 음식도 맞지 않을거야, 기후 풍습도 틀리고….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미지의 세계에 파묻칠 호기심이 앞서기 시작하니 설마 사람사는 곳에 사람이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랴 더구나 나혼자가 아니고 동료가 5명이나 있는데 하고 자위하고 나니 용기가 솟는다. 자문자답하며 명상에 잠긴 나에게 상냥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린다. 예쁘장한 아가씨가 영화를 보겠느냐한다. 보겠다고하니 2$을 내라고 한다. 돈을 주고 나니 청음기를 준다. 이것의 용도를 물으니 좌석옆에 꽂고,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스크린이 없다. 다음은 저녁식사를 아름다운 스튜어디스들이 날아다 준다. 식사가 끝

나고 나니 앞에 있던 풍경화가 바로 뒤집혀 스크린이 된다. 영화는 세곳에서 하며, 각각 틀린것을 상영하여 승객이 원하는 것을 보게한다. 1시간 20분쯤 보고나니 영화가 끝났다.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 점잖게 앉아 있었으며 동양인은 어느나라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느닷없이 한국말로 불편한 것 없느냐고 묻기에 쳐다보니 태평양 횡단 NWA기의 스튜어디스인데 미스 박이라 한다.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이때의 느낌을 무엇이라 표현 하기 어려웠다. 김포공항을 떠난지 불과 6~7시간 내외이지만 긴장과 두려움이 얼켜 얼어 붙은 마음의 탓인지 몇일 아니 몇달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초행자만이 갖는 심정일 것이다.

미스 박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사이 긴장하여 얼어 붙었던 내마음은 언제 녹아버렸는지 모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민족의 피의 흐름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마음의 안정으로 곧 조름이 왔다. 무의식중에 하품을 하니 아가씨가 일어나며 버개와 담요를 준다. 사람이 없으니 두러누워 자라고 하면서 의자의 손잡이를 뽑으니 자동적으로 침대가 된다. 미국방문 초야를 점보젯트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에서 맞이하였다. 얼마를 잤는지 잠결에 눈을 뜨니 주위가 훤하다. 시간을 보니 오전 1시였다(이미 일부변경선을 지났음). 창밖을 내다보니 먼 동쪽 지평선이 붉으레 물들고 있었다. 구름 한점없는 푸른 하늘과 바다, 어디까지 하늘이고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점점 주위가 이글 이글 타오른다. 문듯 18년전 대학시절에 경주여행시 토함산에 올랐다가 동해바다에서 해맞이하던 추억이 되살아나며 박두진 선생님의 해맞이 시가 떠오른다. 비행기내 스피이커는 현지시간 5월7일 오전 6시20분 이니 시간을 맞추라고 알려준다. 내 시계는 1시20분 서울에서 곤히 잠들고 있는 이 시각에 태평양 상공 비행기 내에서 미국방문의 첫 아침을 맞이하였다. 붉은 불덩이인 태양의 일각이 나타났다가 자꾸 커진다. 반, 2/3, 이윽고 둥근 태양이 불끈 용솟음친다.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6시30분! 나는 언제 또다시 볼지 모르는 엄숙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게된 영광을 얻었다. 명상에 잠긴 나에게 또다시 아침식사를 가져다준다. 시간적으로 12시간 사이에 식사는 3식의 하루 식사분을 제공받으니 식사 생각이 없다.



<하와이 공항에서>

식사가 끝나고 나니 미스 박이 흰종이를 건네준다. 미국출입국 증명서와 세관통관 증명서다. 기록 방법을 자세히 아르켜주면서 잘못 기록한것은 고쳐준다. 기내 아나운서가 방송으로 멀지 않아 하와이섬이 나타날 것이며 호놀루루 비행장에 도달하겠으니 벨트를 매고 금연을 부탁한다. 창밖에는 흰 물줄기가 여러개 나타나있다. 자세히 보니 군함과 화물선이 지나고 있다. KAUAI 섬을 지나 득망의 진주만이 멀리 보인다. 화산지대인지 검푸르게 보이는 섬은 구름사이로 분화구도 보인다. 이윽고 고도를 낮추며 비행기는 호놀루루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시각은 7시30분, 동경에서 이곳까지 탑승시간은 7시간30분 걸렸으니 시차관계로 꼭 12시간30분 걸린셈이 된다. 우리일행은 하차준비를 하고 출구로 향하니 군데 군데 통로에 승무원들이 모여 굿바이를 연발한다. 출구까지 나와 막상 내리려하니 더운 공기가 화끈거린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복도가 나타난다. 비행기가 바로 공항 건물에 부착되어 타랍이 필요 없게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치품으로 생각되는 빨간 카펫트가 깨끗하게 깔려 있었다. 출입 관리국에서 파견나온 관리에 여권과 비행기내에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니 친절히 서류를 점토하며 체류기간은 7월1일까지 기록하여 여권에 부착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 바란다고 웃으며 여권을 내어준다. 세관검사도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손수 짐을 끌러보며 또 스스로 작크를 채워 다 되었다며 웃는다.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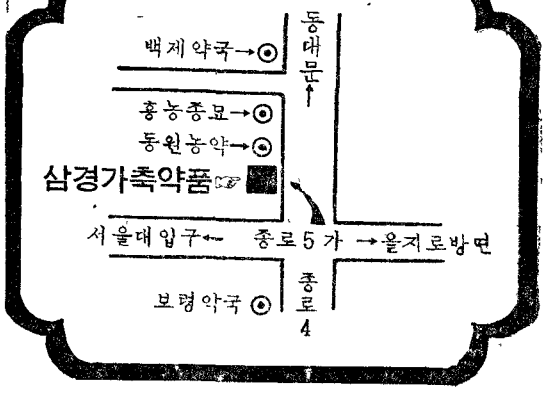
친절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우리나라 세관관리와 비교하며 스스로 자기가 할일은 자기가 철두철미 이행하는 단면과 달콤함을 느끼게 되었다. 조금 이곳에서 기다리니 우리가 타고갈 판 아메리카(PA)비행기 회사 직원이 나와 비행기표를 점검하고 빠스를 타라고 한다. 빠스는 3대를 연결하여 여자가 운전을 하였다. 보세구역을 빠져나와 일반 대합실을 구경하였다. 하와이라 하면 흔히들 「상하의 낙원」이라 표현하며 무우 무우 차림의 하와이안 음악에 마춰 후라춤을 연상케 하며 레이를 두른 아가씨가 반겨 맞아 주는 것으로 알았으나 일본사람들의 남녀노소의 관광객이 목에 레이를 걸고 알로하 셔츠바람에 활보하는것을 보니 슬며시 분노가 치밀며 한편 얼마나 노력하였기에 패망한지 20년만에 경제강국이 되어 이렇게 외국에 많은 국민이 자유로히 여행을 하게 되었나 생각하니 부럽기만하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비싼편이며 이곳의 주산인 파인애플, 파파이야, 망고등 싱싱한 과일이 먹음직스럽다. 공항은 어찌나 큰지 김포비행장 시설의 10배는 되는 것 같으며 내부장치도 참 훌륭하고 편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비행기 회사마다 출입구가 따로 있어 비행기표를 살때 꼭 물어서 사야지 잘못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며 찾느라고 무척 고생하게 된다고 한다. PA항공사로 가니 입국할때와는 달리 조금 엄해보였다. 보안관이 또 다시 짐검사를 하기에 어리둥절하였는데 내짐을 검사하던 여자가 즐거운 여행을 하라고 하며 자기는 미스김이라 하며 하와이에서 출생한 2세라 한다. 10시40분 호놀루루 공항을 출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을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다. 파란 물결속에 요트놀이하는 사람 울긋불긋한 비취 파라솔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잠간사이 이곳을 지나 일로 샌프란시스코로 향 하였다. 역시 점보이며 손님은 NWA보다 많았으며 내부장치도 깨끗한 것 같았다. 5시간의 비행후 무사히 샌프란시스코에 이곳 시간으로 18시30분에 도착하니 우리 일행이 타고갈 비행기는 이미 출발 하고 없었다. 이유는 5월1일부터 하와이주는 썸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는 시행한 관계와 일기 불순으로 약 40분 지연되어 차질을 갖게 되었다. PA회사와 사정이야기를 하니 오늘은 도저히 목적지인 루벅(Lubbok)에 갈수없으니 내일 아침 출발하라고 하며 자기네가 저녁 및 아침 식사대와 호텔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다. 신용과 안전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家畜藥品總販

三耕家畜藥品

가축질병예방약·치료제·사료첨가제
소독약·기타국내외 수의약품 일체판매

家畜疾病診療相談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五街 五十二番地
中央家畜伝染病研究所 서울事務所

Tel (73) 5975